



“떠나보니 알겠더라, 그라운드의 행복”

10개월 재활 끝 복귀 KIA 김원섭

원발목·팔꿈치 수술로 스프링 캠프도 완주 못해
복귀후 결승타·안정된 수비 등 고비마다 맹활약

잃어버야 소중함을 안다고 했다. 김원섭이 그라운드의 소중함을 말한다.

지난해 6월 김원섭은 투수 견제 때 베이스를 잘못 밟으면서 원발목 인대파열 부상을 입었다. 복귀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시즌이 끝나도록 그는 그라운드에 돌아오지 못했다.

상태가 악화돼 지난 가을 발목 수술을 받았고 평소와 통증이 있었던 팔꿈치 부위의

수술까지 받았다. 긴 재활 끝에 참가했던 스프링 캠프도 완주를 하지 못했다.

지난 4월16일 김원섭이 돌아왔다. 우측 발 족저근막염으로 김주찬이 엔트리가 맡 소되면서 김원섭이 1군에 등록됐다. 그리고 한화와의 경기가 열렸던 이날 9회 김민우의 대타로 타석에 들어서면서 10개월 만에 그라운드를 밟았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기회였다. 김원섭은 “외야 경쟁이 치열해서 기회가

늦게 올 줄 알았다. (이)종환이도 대타로서 너무 잘해주고 있었기에 내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빨리 왔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까지 7경기에 나온 김원섭의 타율은 아직 0.214에 불과하다. 하지만 LG와의 주말 3연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다.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25일 2타점 3루타를 날리며 선취점을 만들었고 26일 8회 2사 만루에서는 침착하게 볼넷을 골라내며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무엇보다 안정감 있는 수비로 부상으로 흔들리던 외야에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넓은 수비 폭은 물론 정확한 송구로 26일 경기에서는 오지환을 홈에서 잡아내며 승리를 지켜내기도 했다.

안정적으로 1군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아직은 어색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김원섭의 설명이다.

김원섭은 “아직은 몸이 무겁다. 10개월 만에 경기를 하는 거라 어색하기도 하고, 오래 쉬었기때문에 점점 하면서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적응 단계다.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지난해 부상 났고 지금은 견제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슬라이딩을 하고 있다”고 웃었다.

목심은 버렸다. 그라운드에 있는 자체로 행복한 야수 최고참 김원섭이다.

김원섭은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시합에 못 나가고, 주전으로 못 뛰면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장에서 야구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나에게 한 타석이 주어지더라도, 대주자로 나가게 되더라도 고맙고 행복할 것 같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말·말·말

▲“우와 좋네요”

선동열 감독에게 인사를 건넨 박재홍 MBC 플러스 해설위원은 “우와 경기장이 좋네요”라며 소풍 나온 아이처럼 신이 났다. 올 시즌 처음 광주를 찾은 박 해설위원은 챔피언스필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막 덕아웃으로 나온 참이었다. 라커룸에 이어진 실내 연습장과 웨이트장 등 무동경기장에 비하면 신세계나 다름 없는 챔피언스필드였다. 새 구장에 탄성을 내뿜은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챔피언스필드 구경 온 박재홍 해설위원 “우와~ 좋네요”

실내 연습장을 찾아 해매던 SK 타자 김상현이 그 주인공이다. 방방이를 들고 걸음을 옮기던 김상현은 “나 있을 때도 이렇게 좋았으면...”이라는 아쉬운 탄성과 함께 동료들과 실내 연습장으로 향했다.

▲“보내 주시죠”

29일 에이스 양현종은 투수조 몰 심부름을 담당했다. 막내 한승혁은 이날 선발, 심

동섭은 일찍 훈련을 끝내고 들어가는 바람에 양현종은 막내 역할을 한 것이다. 한대화 수석코치가 부지런히 덕아웃을 누비던 양현종을 붙잡고 “이러다 다른 곳에서 데려가는 것 아니냐”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 번 김광현과 선발 대결을 한 날에는 일본팀에서 직접 보러 오기도 했다”고 양현종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직 FA까지

올 시즌 포함 3시즌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양현종은 정상적으로 올 시즌을 보내면 포스팅 자격을 얻게 된다. 쉬운 도전은 아니지만 해외 진출 가능성은 열리는 셈이다. 싫지 않은 칭찬에 양현종은 “보내 주시죠”라고 슬며시 웃으며 자리를 떴다. “구단에서 보내주시면...”이라는 말과 함께.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선발 복귀

부상 일주일만에 ... 오늘 오클랜드전 출장

왼쪽 발목을 다쳐 미국프로야구 6경기 연속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30일(한국시각) 홈인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 파크에서 열리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전격 선발 출장한다.

29일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9회 대타로 나와 1주일만에 실전을 치른 추신수는 경기 후 “튼 워싱턴 감독님과 상의해 내일 선발 출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2일 오클랜드와의 방문경기에서 1루를 밟다가 왼쪽 발목을 삐끗한 탓에 이날까지 1번 타자 좌익수를 마이클 초이스에게 내준 추신수는 “감독님께 말씀드려 내일 뛰겠다고 말했다”며 출전 강행은 본인의 의지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경기 전 “이틀 후면 완벽하게 회복해 선발로 뛸 수 있을 것 같다”고 차도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2연패에 빠진 팀의 득점력을 높이고자 선발 출전을 자원해 하루 앞당겼다.

텍사스는 오클랜드 선발 소니 그레이의 호투에 막혀 0-4로 패했다.

추신수는 “현재 완벽한 컨디션으로 경기에 뛰는 선수가 팀에 없다”며 “나 또한 경기에 출전하면 집중력을 발휘해 주루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추신수가 출전을 강행함에 따라 그의 부상자명단(DL) 등재를 검토하던 텍사스의 고민도 끝났다.

앞서 추신수는 “기한이 정해진 DL로 가서 부상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구단에 얘기했지만 팀이 계속 회복되기를 기다리겠다고 해 약간 조금한 게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추신수는 이날 더그아웃에서 경기를 지켜보다가 경기 중간 클러치하루스로 돌아가 마사지를 받고 발목에 얼음찜질하며 30일 선발 복귀를 대비했다.

/연합뉴스



KBO ‘가정의 날’ 기념구 한정 판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어버이날 기념구를 한정 판매한다.

어린이날 기념구(안전구)에는 노란 바탕에 청마해를 연상하게 하는 파란색 말이 그려져 있고, 어버이날 기념구는 카네이션을 모티브로 해 제작됐다.

각각 999개씩 한정 판매되며 5월1일 오후 2시부터 KBO마켓(www.kbo-market.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기념구의 가격은 고급 볼 케이스를 포함해 각각 2만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탁구, 23년만의 ‘金’ 도전



일본 도쿄 요요기 체육관의 2014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여자부 단체전 조별리그 C조 프랑스와의 예선 경기에서, 서효원이 상대 로라 가스니에게 공을 넘기고 있다. 한국이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한 1991년 일본 지바 대회가 마지막이다. 당시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연합뉴스

세계선수권대회

남녀 단체전 2연승

한국 남·녀 탁구대표팀이 2014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2연승을 거두며 순항을 이어갔다.

남자 대표팀은 29일 일본 도쿄의 요요기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둘째날 조별리그 2차전에서 스페인을 3-0으로 완파했다.

주세혁(삼성생명)과 조연래(에쓰오일), 서

현덕(삼성생명)이 차례로 나서 알바로 로블레스와 마르크 두란, 카를로스 프랑코에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승리했다.

특히 조연래와 서현덕은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다. 남자 대표팀은 30일 오전 10시 스웨덴을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한다.

전날 네덜란드를 꺾은 여자 대표팀도 프랑

스에 3-0 완승을 거두고 2연승을 달렸다.

서효원(KRA한국마사회)이 먼저 로라 가스니에를 3-0으로 돌려세우며 기선을 제압했고 이어 양하은(대한항공)과 박영숙(KRA한국마사회)이 카롤 그룬디시, 오드리 자리프에 넉넉한 점수차로 이겼다.

/연합뉴스